

讀書餘響 (2)

新秋燈下에 읽고 싶은 書籍

칸트, 헤겔의 二著

安浩相

一時的 氣分으로 流行思想을 따르려 하지 안코 冷靜한 理性으로 不滅의 眞理를 一次 認識코져 希望하는 분에게 多幸이 片鱗의 參考가 될 수 있다면, 敢히 다음 몇 卷의 哲學書類를 紹介하렵니다.

一, 『칸트』의 『判斷力の 批判』(一七九〇年 著) 만일 칸트哲學이 近代 獨逸文化의 烽火라면, 『判斷力の 批判』은 칸트哲學의 最高峰을 形成하고 있다. 該著書는 그의 『三大批判』 中에 年代 上으로 最後 作品일 뿐 아니라, 內容에 있어서 칸트哲學의 最後 完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判斷力の 批判』을 認識하지 못하고는 칸트哲學을 바로 理解할 수 없는 不幸에 빠질뿐 아니라, 그의 哲學思想 對하여 誤解를 품게까지 될 것이다. 칸트는 『純粹理性의 批判』과 『實踐理性의 批判』 兩著書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分析的이어서 모든 것을 오직 分離하는 데만 置重하였음으로 『純粹理性』과 『實踐理性』에선 自然과 文化, 存在와 價値, 現象界와 非現象界 等を 全然 別다른 兩個物로 取扱한 感이 있어 恒常 二元論이 칸트의 思想을 支配하게 되었다. 그러나 칸트는 判斷力の 批判에서 비로소 自己의 二元論的 思想을 克復하는 同時에 理論哲學과 實踐哲學의 根本的 規定과 客觀的 關係를 闡明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判斷力の 批判은 第一 第二 兩篇으로 形成되었는데, 第一篇은 美學으로 되어 있고 第二篇은 目的論으로 되어 있다. 칸트의 美學觀이 獨逸詩人 괴테와 쉘나에게 뿐 아니라, 現代 藝術論에게까지 如何한 影響을 주고 있는가 함은 다음의 草記한 칸트 自身의 說明에서 명백히 認識할 機會를 가질 줄 안다. 그는 該著書 『美의 分析論』에서 유쾌(Angenehm)와 미(Schoen)와 선(Gut)을 구별하면서 愉快는 感覺에서, 美는 感情에서, 善은 理性에서, 成立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또 다시 말하기를 愉快는 動物에도 妥當하고, 善은 神에게도 妥當

하지만, 『美는 오직 사람에게만 妥當하다.』(Schoenheit gilt nur fur menschen)고 하였다. 여기서 괴테의 『藝術은 오직 사람만이 所有한다.』는 思想의 出處를 알 수 있으면 또한 칸트의 『美는 概念 없이 快습한 것이다.』(Schoen ist das was ohne Begriff gesallt)라는 명제로부터 現代 藝術家들이 『藝術은 概念的으로 證明하는 것이 아니라 感情的으로 評價한다.』는 理論을 總評할 수 있을 것이다.

二, 헤겔의 『理論學』(一八一二至一八一七年著)헤겔의 論理學은 現代思想諸形態의 直接 間接 母胎가 되어있음으로, 現代思想을 根本적으로 環解하고 批判하려면 헤겔哲學에 關心치 안할 수 없을 것이다. 헤겔哲學에 對하여 正當한 認識을 가지고져 할진대 그의 論理學에 또한 深刻한 理解를 가져야할 것이다. 헤겔의 論理學은 普通 哲學上에서 指稱하는 論理學과 質을 달리하여 自己의 根本哲學觀을 表現한 著書다. 그의 歷史哲學, 法哲學, 國家哲學, 宗教哲學, 藝術哲學 卽 그의 全 思想體系가 이 論理學을 十臺삼고 建設되어진 것이다. 헤겔은 『情神의 現象學』이란 著書에서 自己의 唯一한 方法인 辨證法을 처음 試驗하여 論理學에서 비로소 그 完成을 보게 되었다. 헤겔의 論理學을 正堂히 認識한 後라야, 辨證性(Dialektik)은 一切것의 本性이며 다시 辨證的方法은 참된 哲學의 方法이 되는 것을 철저히 깨다를 것이다. 그는 論理學의 第一章에서 存在(有)의 虛無性(非存在性) 뿐만 아니라 非存在(無)의 虛無性까지 指摘하여, 오직 存在와 非存在에서만 哲學의 生命線을 보고져 하는 哲學以前의 頭腦 卽 非哲學的 頭腦에 一大 警鐘을 울여 주었다. 그리하여 有에서 無를 찾았으며 無에서 有를 찾아 有와 無의 眞理를 覺得하였다. 다시 헤겔의 論理學을 全體적으로 볼 때에는 存在(Sein)는 獨占한 存在가 아니라, 本質(Wesen)으로 옮겨가는 存在로서 一個의 段階며 또 다시 本質은 概念으로 옮겨가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푸로체쓰는 永遠한 眞理의 發展過程으로서 곧 現實의 眞理化며 眞理의 現實化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實을 떠난 眞理, 眞理를 떠난 現實은 오직 主觀的 생각에만 存在할 수 있고, 客觀的 眞理에선 妥當할 수 없는 것이다. (끝)